#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의 믿음

## (욥기 20:1~29)

1.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3.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4.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5.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6.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7.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8. 그는 꿈 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9.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10.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11. 그의 기골이 청년 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의 믿음

한 연구에서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사전의 가격을 매기게 하였습니다. 한 그룹에는 1만 단어가 수록되어 있는 최상 품질의 사전을 제시하고 그 가격을 매기게 하였는데, 이들이 매긴 가격의 평균은 24달러 31센트였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2만 단어가 수록되어 있지만 겉표지가 찢어진 사전을 제시하고 가격을 매기게 하였더니, 평균 가격이 20달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앞에 제시했던 두 사전을 나란히 내놓고 가격을 매기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앞서 24달러 31센트로 책정되었던 1만 단어의 사전은 19달러로 낮게 평가되었고, 겉표지가 찢어진 2만 단어 사전은 무려 27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나란히 놓고 비교함으로서 단어의 수가 갑절이나 많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씩 놓고 볼 때에는 외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했지만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때에는 사전의 본래 용도인 단어의 수가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생활화하자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십자가 생활화를 해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교계 내에서는 십자가 생활화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근간이 된다는 고백을 하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는 합니다만, 그 십자가를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생활화하자는 이야기를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을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8장 36절에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세상을 나란히 비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체가 이러한 비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59절에서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비교되어 이 땅에서는 자신을 돌로 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위와 땅을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이렇듯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성립할 수 없고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는 것을 소발이 듣다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패망한다.'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이치인데 욥이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금의 욥이 당한 재앙정도라면 악인이 망한다는 불변의 원칙이 적용된 것인데 왜 욥은 악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발은 욥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 무릎을 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온갖 방면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발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재앙을 겪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악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 세상에서 재앙이나 환란이 악함의 결과로 주어지

는 것으로 믿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열 명의 훌륭한 자녀와 막대한 재산이 있었고 빼어난 아내가 있었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욥이 재앙을 당한 것에 자신이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음을 주장하는데 소발은 이것을 잘못으로 봅니다. 결국 욥이 지금까지 누린 축복을 근거로 삼아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소발은 욥을 반박하기 위해 악인도 이 세상에서 번영하거나 형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악인의 번영은 필연적으로 멸망과 파멸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전의 친구들의 생각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욥에 대한 분노만 더 커졌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소발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요?
소발은 악인에게 주어지는 궁극적 멸망이 이 세상에서의 재앙이나 파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인을 향한 형벌은 될 수 없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떠올려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 아래에서 가졌던 모든 비전과 꿈을 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산 아래에 남아있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서조차도 잊어버린 채 여기가 좋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행복한 나머지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보면 이 행복의 순간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초막을 지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그 황홀했던 체험은 하나의 꿈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늘나라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나란히 놓여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하늘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몸부림을 치며 이 세상을 빠져나와서 주님이 변화하신 영화로운 세계로 들어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마치 동독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서독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냉전시대에 동독은 나름대로 전 세계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동독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서독으로의 월담을 시도했습니다. 하물며 제자들이 체험한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세계를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극히 일부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산 아래를 까마득하게 잊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후에 일어난 첫 사건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산 사건을 세상과 비교함으로서만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산에서 체험한 천국의 모습과 이 세상이 나란히 비교될 때에 내게 주어지는 가장 큰 저주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많은 가치들에 매몰되고 묶이는 것입니다. 즉 욥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열 명의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되고 건강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상태의 마음이 매몰되어 있고 묶여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천국 모습과 이 세상이 우리 눈앞에 나란히 비교되고 있다면 이게 가장 저주스러운 상태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이라는 가치를 좋아하지만, 이것을 천국과 비교한다면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품질 좋은 1만 단어짜리 사전과 겉표지가 손상된 2만 단어짜리 사전을 각각 놓았을 때와 나란히 놓고 보았을 때에 가격이 완전히 달랐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나란히 비교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 눈에서 살짝 가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눈으로 보면서 그곳을 선호하고 사랑하고 열망할 때에 세상의 가치가 추락하는 것은 명백하기에 인격적인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천국의 일부분을 보았을 때에 산 아래에서 열망하던 일들에 대해 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천국을 눈으로 본다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가고 싶어 하지 않을 사람이 없기에 믿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천국을 선택하시길 바라셨기에 그 좋음을 가려두신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가 폭등하게 됩니다. 천국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천국과 세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선택과 결단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면 이 세상은 천국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녀와 재산과 사회적 존경과 인간관계와 건강까지 상실하게 된 이 상태는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에 너무나 가뿐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부자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단서가 없습니다. 또한 거지 나사로가 무엇을 잘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간 나사로와 지옥에 떨어진 부자사이의 광경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부자는 자색 옷과 가는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매몰되어 살았던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세상의 가치에 묶인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마치 욥과 같은 상태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온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고 나사로도 온 몸에 헌데가 나서 개가 핥았습니

다. 이렇게 천국을 나란히 놓고 보면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많은 것을 누렸던 대제사장들보다도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첫 번째로 예고하신 다음에 변화산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인생과 목숨을 걸고 이루고 싶은 많은 꿈들이 있었지만 천국의 일부를 잠시 본 것만으로도 그 꿈들을 깡그리 잊을 정도였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과 나란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에 나를 질식시킬 정도로 짓누르던 세상에서의 실패는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사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에 가격이 전복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와 세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것은 단순히 고난의 삶을 감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천국에서 사셨고 천국에서 오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서 머리 둘 집을 마련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인간세상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상태와 최저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존재하므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마음을 나사로의 처지에 이르게 해야만 합니다. 나사로의 처지는 온전히 천국에만 마음을 두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은 곧 마음이 믿음으로 인격적 사랑의 결단으로 천국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체험은 하늘과 세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교할 때에 내가 아직도 세상에 마음이 묶여있음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천국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연연하는 마음이 날마다 죽음으로서 변화산에서 체험한 베드로의 경험이 지금 나의 경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